

웃음 에너지로 아이들을 지켜요

우리에게 개그맨으로 알려진 서승만 씨는 <노노 이야기>라는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을 기획하여 10년 동안 순회공연을 해왔다. 자비 부담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나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공연을 본 아이들 중 한두 명 만이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서승만 씨. 그는 웃음 에너지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사회 작은 영웅이다.

NO NO! 교통사고는 절대 안 돼!

객석에는 꼬마들이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앉아 있다. 막이 오르면 무대에는 노노의 인형 ‘مام미’와 ‘놀람’이가 나온다.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노노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가 없어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자 심술마법사가 나타나 엄마를 데리고 가버린다.

개그맨 서승만 씨가 연출한 교통사고 안전 뮤지컬인 <노노 이야기>의 한 장면이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온 개그맨 서승만 씨는 알고 보면 그냥 개그맨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지킴이이다. 다

만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안전에 재미를 더해 전해 준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노 이야기>이다.

그는 2005년부터 10년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뮤지컬인 <노노 이야기>를 전국 순회공연 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 공연을 본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서승만 씨는 이렇게 말한다.

“공연을 본 아이들 중 한두 명 만이라도 <노노 이야기>를 기억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 소임은 다한 거라 생각합니다.”

<노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길로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에도 처하게 되고 마녀의 함정에도 빠지지만 지혜롭게 헤쳐나감으로써 마지막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안전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시



이전에 없던 안전 교육 뮤지컬 <노노 이야기>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었다.

나리오이지만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작업과정을 거쳤다. 아동심리학자,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와 웃음 코드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노노’라는 제목은 “교통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NO를 두 번 넣어 강조한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서승만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노노 이야기>는 10년에 걸쳐 계속되어 오는 동안 한때는 중단의 위기를 맞이 하기도 했지만, 교육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후에는 정부와 전국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남을 돕는다고보다는 즐기는 것일 뿐!

서승만 씨가 안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작은 사연이 있다.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카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을 서승만 씨는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픔을 잘 이해한다. 그런 아픔이 있기에 서승만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기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통사고’를 예방



어린이 안전 뮤지컬을 기획한 개그맨 서승만 씨

하기 위한 <노노 이야기>는 어린이라면 꼭 봐야 하는 공연이 되었는지 모른다.

서승만 씨의 후배이자 동료 개그맨이기도 한 노정렬 씨는 <노노 이야기> 공연이 있는 날이면 종종 공연장을 찾아와 관객의 분위기를 잡아주곤 한다.



노정렬 씨는 서승만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연예인의 특성상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두 번 봉사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한 분야의 봉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승만이 형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이 부르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달려오죠.”

서승만 씨는 <노노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 왔다. 교육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만큼 아이들이 보기에 신선한 느낌을 주도록 계속해서 대사를 수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의 변화된 흐름도 발 빠르게 반영해 왔다. 그런 노력 덕분에 <노노 이야기>는 10년이 넘도록 교통안전 교육 효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성의 수준도 유지할 수 있었다.

<노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동안 서승만 씨의 고통도 컸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자비로 충당하면서 개인의 재능과 시간, 사업가로서의 수익마저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러한 과정에 대해 그리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걱정하고 남을 도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남을 돕게 되었을 뿐입니다. 걱정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 겁니다. 그게 또 남을 돕는 것이니까요.”

서승만 씨가 생각하는 봉사는 ‘나부터 즐겁게 사는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



공연이 끝나고 난 뒤 함께한 극단 '상상나눔' 식구들

겉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하는 봉사일 때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우울한 사람은 남을 도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폼 잡기보다는 소탈하게, 남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온 10년의 봉사가 그에겐 또 하나의 기쁨이요 스스로에게도 웃음을 선사하는 일이었다.

참 웃기는 개그맨이자 다재다능한 문화기획자인 서승만 씨는 재미있는 공연과 웃음을 통해 우리 사회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지켜가고 있는 작은 영웅이다. ✨

Interview

서승만 /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노노 이야기> 기획자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Q. 안전에 대한 뮤지컬 공연을 계속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공연을 보고 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애가 달라졌다!”며 전화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노노 이야기>를 보고 아이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든가 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뮤지컬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안전을 지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응도 좋고요.

Q. 어린이 뮤지컬 <노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A. 대학로에서 뮤지컬 작업을 할 때였어요. 낮에는 비어 있는 공연장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린이 뮤지컬을 떠올렸죠. 대학로에서도 어린이 뮤지컬을 몇 개 하기에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1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노노 이야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A. 최근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에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긴 것이지요. 앞으로는 뮤지컬 외에도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위해 <노노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평소 가지고 계신 생활신조는 어떤 것인가요?

A. 하루하루 감사하며 즐겁게 살자는 게 신조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담아 두지 않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과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지요. 즐거운 사람이 주변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